광주지방기상청	보도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즉 시 배포 2026. 6. 24.(수) 11:00

폭염 영향예보, 인공지능(AI) 돌봄로봇이 하루 두 번 직접 알려드립니다

- 위치 기반 자동 음성 안내로 어르신 맞춤형 폭염·강수 정보 제공 -

□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정현숙)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24일부터 「인공지능(AI) 돌봄로봇을 활용한 폭염정보 음성 자동안내 서비스」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.

□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(AI) 돌봄로봇 전문기업인 '미스터마인드'와의 민관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다.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데이터를 돌봄로봇 시스템과 연동하여, 이용자가 별도의 기기 조작 없이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위치 기반 기술을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.

□ 이번 시범 운영은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순천시 및 함평군에 거주하는 돌봄로봇 이용자 약 62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. 돌봄로봇은 폭염 영향예보를 바탕으로 매일 2회(오전 8시 및 정오 전후) 자동 음성 안내를 실시한다. 폭염 위험 수준뿐만 아니라 "물 자주 마시기", "야외활동 자제"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행동 요령을 함께 전달하여 피해 예방을 돕는다.

□ 또한, 폭염 정보 외에 강수 예보도 함께 제공한다. 비가 예상되는 날에는 "외출 시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"와 같은 생활 밀착형 안내를 추가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기상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□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서비스가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에게 맞춤형 기상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돌봄 서비스와 기상정보의 결합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기상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.

□ 정현숙 광주지방기상청장은 "기상정보를 단순히 생산·제공하는 것을 넘어,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"며, "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취약계층 대상 영향예보 전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."고 밝혔다.

AI 돌봄로봇(미스터마인드 제공)

담당 부서	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	주형돈 (062-720-0320)
		담당자	전문관	김문용 (062-720-035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